

김종서 외 저,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신편 고려사절요 상』(서울: 신서원 편집부, 2004)

* 해제:

- 김종서 등이 문종 2년 『신편고려사절요』의 진전(進箋)에서 기전체의『고려사』와 편년체의 『고려사』의 장단점 비교: 『고려사』는 139권, 『고려사절요』는 35권
- 선행적 왕조사로의 고려 일대의 史를 쇠망사관에서 보려던 조선초의 편견을 벗어나 제도와 치민을 바로잡는 발전사관에서 정비 이해하려고 힘썼음.
- 조선 태조 이성계가 개국(1392) 10월 13일 『고려사』의 편찬을 명함. 정도전의 곡필로 태종과 세종이 개수를 명하여 세종 6년 8월 류관, 윤희 등이 교정을 마침.
- 권제, 안지에 의한 『改修高麗史』가 역사를 편수함에 공정하지 아니함이 있어 반포 정지.
- 기전체 『고려사』가 문종 2년 2월 완성된 후 5개월후에 『고려사절요』가 만들어짐.

□ 『고려사절요』을 올리는 전(箋)

○ 고려의 건국과정, 잘한 점, 잘못된 점을 지적. 중기이후로 임금 노릇을 못하여 폐신과 권간에게 제 어당하며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쇠퇴함. 왕씨의 제사가 끊어지고 공양왕이 반정하였으나 스스로 멸망에 이룸.

□ 『고려사절요』범례

○ ..., 중국의 사신은 왕래가 비록 잦았으나 반드시 썼으니 중국을 높인 때문이요.(14쪽)

1. 『고려사절요』권 제1

□ 太祖 원년<무인>~26년(계묘>): 태조신성대왕(太祖神聖大王)

- 무인 원년(918년), 후량 말제 정명(貞明) 4년: 거란 태조 신책 3년
 - 여름 6월 병진일, 태조가 왕위에 올라 국호를 高麗라 하고, 연호를 天授라 고침.
 - 태조의 가계, 도선대사와 만남.
 - 견훤의 후백제 건국. 궁예는 고구려의 옛땅을 점거하여 철원에 도움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泰封이라 함(22쪽). 태조가 궁예 밑으로 들어가서 수군을 이끌어 견훤에게 승리하여 성장하고 신하 등 민심을 얻음.
 - 세조(태조의 父)가 궁예를 설득하여 아뢰기를 “대왕께서 만약 조선, 속신(肅愼), 변한(卞韓)의 왕이 되시고자 하면 먼저 송악군에 성을 쌓고 자기 맏아들(태조 지칭)을 성주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하여, 태조가 20세에 발어참성을 쌓고 성주가 됨(23쪽).
 - 3월 객상 왕창근이 당에서 와서 거울을 구입. 거울안 글씨에 왕건이 왕이 됨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궁예가 망하고 왕건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 뒤에 鷄林(신라)를 얻고 압록강까지 수복한다는 뜻으로 해석.
 - 6월 장수등이 태조에게 왕에 추대함. “어두운 임금을 폐하고 밝은 임금을 세우는 것은 천하의 큰 의리이니 공은 은나라와 주나라의 일을 행하소서.”(27쪽) → 태조의 사양: “신하로서 임금을 치는 것을 혁명”이라 하지마는 자신은 탕왕, 무왕이 한 일을 본받을 수 없다고 함. → 장수들의 요청과 부인 柳氏의 권유로 군사를 일으켜 궁예를 쫓아냄.

- 정사일에 조서를 발표하여 태조가 새로운 왕이 됨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설명함 : 일부 호족들, 거사에 같이 가담한 장수들의 반발과 반란을 진압하고 널리 인재를 구하여 관직에 임명함
- 관제를 정하고 조서를 내림(33-34쪽) : “이제 모두 신라의 관제를 따르되 그 名義가 알기 쉬운 것은 새 제도를 따르도록 하라.”
- 8월에 왕이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짐은 변방의 근심이 될까 염려하여 여러 도의 도적들에게 사자를 보내 폐백을 후하게 하고 언사를 낮추어 좋은 뜻을 보였더니 과연 귀부하는 자가 많았으나, 후백제 견훤만 교빙하지 않았다”고 함(37쪽)
- 석방 골암성의 장수 윤선이 흑수오랑개를 불러들여 변방고을들을 침해함. 이때 왕이 사자를 보내 초유한다는 말을 듣고 항복함으로써 북쪽 변방이 편안해짐(38쪽). 개국에 공을 세운 신하에게 포상함.
- 견훤이 일길찬 민합을 보내 왕의 즉위를 축하함. 왕이 대중전에 나가 축하를 받고 후한 예로 그를 대접하여 보냄(39쪽).
- 평양으로 이주를 지시함 : “번인(蕃人)들이 그 사이에서 사냥하고 침략하니 마땅히 백성을 평양에 옮겨살게 하여서 번병(蕃屏)을 튼튼하게 하도록 하라” (41쪽)

○ 기묘 2년(919년), 후량 정명(貞明) 5년: 거란 태조 신책 4년

- 봄 정월에 송악 남쪽에 도읍을 정함. 5부로 나누고 6위를 설치함.
- 사신(?)이 말하기를 “두 큰 강국(신라, 후백제 지칭)이 평정되지 않고 항복하지 않은 성도 많아서 전쟁이 그치지 않는 상황에서”, 도성에 절을 짓는 것을 비판함: 불교를 믿으라는 교훈은 불교의 폐단으로 나가게 됨. ‘신라가 절을 지어 빨리 망했다’라고 언급함. 불교가 나라에 화근을 끼치기 때문에 그 폐단을 경계함.

○ 경진 3년(920년), 후량 정명(貞明) 6년: 거란 태조 신책 5년

- 봄 정월에 신라에서 사신을 보내 예물을 가지고 옴
- 3월에 북계의 골암진이 자주 북방 오랑개에게 침략을 당해, 유금필이 개정 군사 3천명을 거느리고 큰 성을 쌓아 지키게 함. 이로 말미암아 북방이 편안해짐.
- 가을 9월에 견훤이 아찬 공달을 보내 孔雀扇과 竹箭을 바침.
- 겨울 10월에 견훤이 신라를 침공하자, 신라에서 구원을 청함. 왕이 군사를 보내 구원하니 이때부터 고려와 후백제가 틈이 생김
- 이해에 왕이 북계를 순행하고 돌아옴

○ 신사 4년(921년), 후량 용덕(龍德) 원년: 거란 신책 6년

- 봄 2월에 黑水의 추장인 고자라 등 170명이 와서 의탁함
- 달고적(達姑狄) 171명이 신라를 침범하는 길에 등주(함남 안변)을 지나갈 때 장군 견권이 크게 패배시킴: 신라왕이 기뻐하며 사신을 보내 사례함.
- 여름 4월에 흑수의 아어간이 2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의탁함.
- 가을 9월에 낭중 찬행을 보내 변방 고을을 순시하고 백성을 위안하고 무마함
- 12월에 아들 武를 책봉하여 정운(正胤, 태자)로 삼음
- 후백제의 궁창, 명권 등이 와서 의탁하자 전택을 내려줌

○ 임오 5년(922년), 후량 용덕(龍德) 2년: 거란 천찬(天贊) 원년

- 봄 2월에 거란에서 낙타와 모진(毛氈, 짐승털 담요)을 보내옴

- 각지의 호족들이 의탁, 귀순 내지 항복함.
- 왕이 서경에 행차하여 새로 서경에 관료를 둬. 서경에 재성(在城)을 쌓았는데 6년 걸림.
- 계미 6년(923년), 후당 장종 동광(同光) 원년: 거란 천찬(天贊) 2년
 - 여름 4월에 대광 유금필이 북번(北蕃)을 초유하여 1500명이 귀부하였고, 북번은 사로잡혀간 3천 여명의 우리 나라 사람을 돌려보냄
 - 6월에 오월국의 문사 박암(朴巖)이 와서 의탁함.
- 갑신 7년(924년), 후당 동광(同光) 2년: 거란 천찬(天贊) 3년
 - 가을 7월에 견훤이 아들 수미강과 양검을 보내 조물군을 공격함. 장군 애선과 왕충을 보내 구원하게 하였으나 애선은 전사하고, 조물군은 굳게 지켜서 수미강 등이 이기지 못하고 돌아감
 - 9월에 신라왕 승영(昇英)이 죽고 그 아우 위응이 즉위함. 이 사실을 사람을 보내 상을 알려왔으므로, 왕이 슬픔을 표시하고 재를 베풀고 명복을 빌고 사신을 보내 조문함.
- 을유 8년(925년), 후당 동광(同光) 3년: 거란 천찬(天贊) 4년
 - 봄 3월에 길이 70척의 지렁이가 궁성 동쪽에서 나옴. 그 때 渤海國이 와서 의탁할 징조라고 봄
 - 겨울 10월에 고을부 장군 능문이 의탁하자, 그 성이 신라의 왕도에서 가까우므로 그를 위로하여 돌려보내고 그 휘하 사람들만 머무르게 함
 - 후백제를 공격함: 견훤이 화친을 청하여 사위 진호를 볼모로 보내자, 태조도 집안동생 왕신을 볼모로 보냄. 신라가 사신을 보내서 견훤가 화친하는 것을 반대하니, 왕이 그말을 옳게 여김
 - 11월에 탐라에서 지방의 산물을 바침
 - 12월에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킴. 발해에 대한 간략한 소개. 거란주가 군사를 크게 일으켜 발해를 멸망시키고 동단국(東丹國)이라 고쳐 부름. 발해국의 세자 대광현을 비롯 관리들이 남은 사람을 거느리고 전후로 수만호가 도망하여 옴. 왕은 이들을 매우 후하게 대접하여 대광현에게 왕계(王繼)라는 성명을 내려주고 종식의 적에 붙여 그 선대의 제사를 받들게 함.
 “발해는 본래 속말말갈(粟末靺鞨)인데, 당나라 武后 때에 고구려 사람 대조영이 달아나 요동을 지키기 당나라 예종이 발해군왕(渤海郡王)으로 봉했다. 그뒤에 스스로 발해국이라 일컬으며, 부여, 숙신 등 10여 나라를 아울러 다 차지하고 문자, 예악과 관부의 제도를 세웠다. 5경 15부 62주를 두었으니 땅이 사방 5천여리이며 인구는 수십만이였다. 우리 국경과 인접하여 있었는데, 거란과는 대대로 원수지간이였다.”(49-50쪽).
- 병술 9년(926년), 후당 명종 천성(阡城) 원년: 거란 태종 천현(天顯) 원년
 - 견훤이 볼모 전호의 죽음을 핑계로 공격해옴. 신라는 사신을 보내 견훤군대를 패배시킬 것을 독려:태조는 신라 사신에게 견훤이 스스로 쓰러지기를 기다린다고 입장을 밝힘
 - 겨울 12월 서경에 행차하여 주, 진을 순시하고 돌아옴
 - 이해에 장빈(張彬)을 후당에 보냄
- 정해 10년(927년)
 - 9월, 견훤의 신라 공격, 태조가 직접 나서서 구원병 보냈으나 패배
 - 12월, 견훤이 태조에게 휴전 제의: 오월국의 중재 의사 전달 (55쪽)
- 무자 11년(928년)
 - 봄 정월에 태조의 회답: 견훤에 대한 원한에도 불구하고, 오월국의 중재를 수락, 휴전.(58쪽)

- 그러나 고려-후백제간 전투 계속
- 발해국 은계종이 태조에게 세 번 절함(나라를 잃은 사람이 세 번 절하는 것은 옛날의 예절)
- 기축 12년(929년) : 고려-후백제간 몇 차례 전투에서 고려가 패배
 - 6월. 천축국(인도)의 삼장법사 마후라가 음. 태조가 의장을 갖추고 영접함.
- 경인 13년(930년)
 - 태조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견훤 군대를 물리침: 신라 동쪽 주, 군 부락이 항복함
 - 우릉동(芋陵島, 경북 울릉도)에서 사신을 보내 지방의 산물을 공물로 바침(63쪽)
- 신묘 14년(931년)
 - 봄 2월 신라왕이 귀순 의사 알림
 - 안북부와 강덕진 설치: “북변 사람들이 얼굴은 사람꼴이지만 마음은 짐승과 같아 굶주리면 오고 배부르면 가버리며 이익을 보면 부끄러움도 잊는다. 지금은 비록 우리에게 복종하여 섬기고 있지만, 따르거나 배반함이 일정치 않을 것이니 마땅히 지나가는 주·진에서는 관사를 성밖에서 접대하라”고 지시
- 임진 15년(932년)
 - 땡상 왕중서를 후당에 보내 지방의 산물을 바침
- 기사 16년(933년), 후당 장흥 4년: 거란 천현 8년
 - 봄 3월에 후당에서 태복경 왕경과 태부소경 양소업을 보내 왕을 책립하여 ‘특진 검교태보사 지절현 도주도독 상주국 충대의군사’로 삼고 이어 고려국왕으로 봉함.
 - : 日曆, 은그릇, 피륙을 보냈으며, 조서로써 비 柳氏를 봉하여 하동군(河東郡夫人)으로 삼음.
 - : 삼군의 장수와 이졸에게 조서를 내려 왕을 책봉한다는 뜻을 효유함. 드디어 曆書를 반포하고 후당의 연호를 시행함. (69쪽)
- 갑오 17년(934년) : 태조가 직접 군대 이끌고 후백제 공격, 웅진 이복의 30여성이 항복
- 을미 18년(935년)
 - 견훤의 아들 신검의 난 : 6월에 견훤이 도망쳐 고려에 들어와 조회 요청. 견훤에게 楊州를 식읍으로 줌
 - 11월 신라의 경순왕이 백관을 이끌고 개경에 들어옴: 만말 낙랑공주를 신라왕에게 시집보냄
 - 신라왕 김부가 신라의 예를 갖추기를 희망하였으나 처음에는 사양함. 신라국을 없애고 慶州라 하여 김부에게 식읍으로 주고 事審官으로 삼음. 신라 왕실과 태조가 혼인관계를 맺음
- 병신 19년(936년)
 - 견훤의 사위인 장군 박영규가 고려에 항복함.
 - 태조가 군대를 이끌고 견훤과 함께 후백제를 공격함. 신검이 항복함. → 삼한평정
- 정유 20년(937년), 후진 천복 2년: 거란 천현 12년
 - 왕규와 형순을 후진에 보내 황제에 오름을 축하함
- 무술 21년(938년)
 - 3월에 서천축의 중이 음: 태조가 두 거리의 위기와 법가를 갖추어 맞이함
 - 비로서 후진(後晉)의 연호를 시행함
 - 12월에 탐라국의 태자 말로가 와서 조회함
- 기해 22년(939년) 후진 천복 4년: 거란 회동 2년
 - 후진에서 국자박사 사반을 보내 왕을 책봉하여 개부의동삼사 검교태사로 삼음
- 경자 23년(940년)
 - 후진에서 고려의 볼모 왕인적을 돌려 보냄

- 신축 24년(941년)
 - 대상 왕신일을 후진에 보내 토산물을 바침
- 임인 25년(942년), 후진 천복 7년: 거란 회동 5년
 - 겨울 10월에 거란에서 사신을 보내 낙타 50필을 가져옴. 태도는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으니, 화친을 맺어 이웃으로 삼을만하지 못하다고 하고 교빙을 끊음. 사자 30명을 귀양보내고 낙타를 굶어죽게함 (85쪽): * 이제현은 충선왕에게 태조가 낙타를 굶어죽게 한 것이 오랑개(거란)의 간사한 계책을 꺾으려는 것이었는지, 훗날의 사치한 마음을 막으려는 것인지 알수 없다고 대답함
- 계묘 26년(943년), 후진 출제 잉칭 천복 8년: 거란 회동 6년
 - 여름 4월에 태조가 <訓要> 10조를 주며 후세에 지킬 사항을 지시함
 - 1조: 불교를 숭상하되 중의 청탁은 금지할 것
 - 2조: 함부로 사원을 더 창건하지 말 것
 - 3조: 적자, 적손이 불초하면 차자를 추대하고 물려줄 것
 - 4조: 거란과 교류하지 말 것 (“우리 동방은 옛날부터 당나라의 풍속을 본받아 문물과 예악이 모두 그 제도를 준수하여 왔으나, 나라가 다르면 사람의 성품도 다르니 반드시 구차히 같게 하려 하지 말라. 거란은 짐승이나 다름없는 나라이므로 풍속이 같지 않고 언어 역시 다르니 부디 의관제도를 본받지 말라”)
 - 8조: 차현(차령산맥) 이남과 공주강 아래의 주, 군, 사람(과거 후백제 지역)이 벼슬자리에 올라 권세를 행사하거나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할 것.
 - 5월 태조가 병환으로 죽음 * 이제현 : 태조가 자주 서경에 행차한 것은 동명왕의 옛 영토를 집안 대대로 전해오는 물건처럼 여겨서 거두어 차지하지 하고자 했음. 친히 북방의 변경을 순수한 것은 사나운 풍속을 합쳐 교화하려 함.

2. 『고려사절요』제2권

□ 혜종 의공대왕

- 태조의 맏아들. 후백제 정벌에 공 세움. 2년간 재위
- 갑진 원년(944), 후진 개운 원년: 거란 회동 7년
 - 광평시랑 한현규와 예빈경 김렴을 후진 파견, 왕위 계승을 알리고, 거란을 쳐부순데 대해 하례함
- 을사 2년(945)
 - 후진이 사신을 보내 왕을 책봉하여 지절 현도주도독 상주국충 태의군사 고려국왕으로 삼음
 - 왕규가 반역 시도에도 죽이지 않고 동생 왕자 요와 소를 보호. 공주를 아우 소의 아내로 삼게함.
 - 왕의 사후 왕규가 난을 일으키자 왕식렴이 진압하고 귀양보내 죽음

□ 정종 문명대왕 : 병오 원년(946)- 기유 4년(949)

- 태조의 둘째 아들 (왕자 요). 4년간 재위. 서경 천도 시도
- 정미 2년(947) : 광군사를 설치. 최광윤이 빈공진사로 유학하여 후진에 들어갔다가 거란에 사로잡힘. 재주가 뛰어나서 거란에 임용되어 관작을 받음. 거란의 사신으로 귀성에 와서 거란이 장차 고려를 침략할 줄 알고 서신으로 보고함. 이에 군사 30만명을 뽑도록 명하여 光軍이라 부름
- 무신 3년(948) : 동여진의 소무개 등이 말 7백필과 토산물을 바침. 후한의 연호 시행

□ 광종 대성대왕 : 경술 원년(950) -

- 이름은 소. 정종의 동모제, 26년간 재위.
- 경술 원년 (950) : 재앙을 물리치는 방법으로 왕이 덕을 닦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관정요>를 읽음. 장청진(평북 영변)과 위화진(평북 운산)에 성을 쌓음.
- 신해 2년(951), 후주 태조 광순 원년: 요 목종 응력 원년 - 후주 연호 시행
- 임자 3년(952) : 안삭진(평북 운산)에 축성. 광평시랑 서봉을 후주에 보내 방물을 바침.
- 계축 4년(953): 후주가 사신을 보내 왕을 책봉하고 '특진 검교태보사지절 현도주도독 총대의군사 겸어사대부 고려국왕'으로 삼음
- 을묘 6년(955), 후주 현덕 2년: 대상 왕용을 후주에 보내 방물을 바치고, 광평시랑 훈질을 보내 즉위한 것을 경하함
- 병진 7년(956) : 후주가 장작감 설문우를 보내 왕을 올려 책봉하여 '개부의 동삼사검교태사'로 삼고, 이어 백관의 의관을 중국 제도에 따르도록 함. 후주의 쌍기(雙冀)가 병이 나서 머물게 되자, 후주에 표문을 올려 요속으로 삼도록 요청하고, 문병(대제학)을 맡기니 여론이 불만스러워함
- 무오 9년(958)
 - 쌍기의 건의에 의해 처음으로 과거제 설치.
 - 후주가 사신을 보내 비단 수천필을 싸가지고 와서 구리를 사감.
- 기미 10년(959), 후주 현덕 6년: 요 응력 9년
 - 봄에 좌승 왕공과 좌윤 황보 위광을 후주에 보내 방물을 바침/ 가을에 사신을 후주에 보냄
 - 후주가 좌효위대장군 대교를 보냄
 - 겨울에 사신을 후주에 바쳐 구리와 수정을 공물로 바침
 - 후주의 시어 청주수령 쌍철(쌍기의 父)가 오자 좌승으로 임명함
- 경신 11년(960)
 - 백관의 공복을 정함. 개경을 皇都라, 서경을 西都라 부름.
- 임술 13년(962), 송 건륭 3년: 겨울에 광평시랑 이흥우를 송에 보내 방물을 바침
- 계해 14년(963), 송 건덕 원년: 겨울 12월에 송의 연호 시행. 송이 책명사를 보내옴.
- 을축 16년(965) : 대승 내봉령 왕로를 송에 보내 방물을 바치자 황제가 왕로에게 상서좌복야 식실봉 3백호를 내림
 - 서필이 왕에게 귀화해온 중국 사람들을 후대하여 신하들의 집과 말을 빼앗아 주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왕이 이를 받아들임
- 임신 23년(972)
 - 내의시랑 서희(徐熙)를 송에 보내 방물을 바침. 황제가 명하여 왕에게 식읍을 더주고 '추성 순화 수절 보의공신'의 칭호를 줌. 서희 당 사절에게 관직을 하사함.
- 을해 26년(975) : 5월에 왕이 병환으로 죽음

□ 경종 현화대왕

- 이름은 주, 광종의 맏아들. 6년간 재위
- 병자 원년(976), 송 태종 태평흥국 원년: 겨울 11월에 송에서 사신을 보내 왕을 책봉하고 '광록대부 검교태부 사지절 현도주제군사 현도주도독 대순군사' 식읍 3천호로 삼음.
 - 사신을 송에 보내 즉위를 축하함.
 - 김행성을 송에 보냄. 국자감에 입학하여 과거에 오름.
- 정축 2년(977) : 사신을 송에 보내 좋은 말과 갑옷, 무기를 바침
- 무인 3년(978) : 송이 태자중윤 장계를 사신으로 보냄

- 기묘 4년(979) : 송이 사신을 보내 왕을 책봉하여 시중으로 삼고 식읍 1천호를 더해줌
 - 발해 사람 수만명이 의탁해옴. 청새진(평북 희천)에 축성함.
- 신사 6년(981) : 왕이 병환이 깊자 사촌동생 개령군 치에게 선위한 후 죽음

□ 성종 문의대왕

- 이름은 치. 태조의 7번째 아들 옥의 둘째 아들. 16년간 재위.
- 임오 원년(982)
 - 백관의 칭호를 고침.
 - 최승로의 상서 내용 게재 : 태조가 거란과 단교하고 발해 유민을 후대한 것을, 북쪽 변방을 지키는 일을 상기시킴(121쪽). 이전 왕들의 업적을 평가함. 왕의 정사가 시작을 잘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것 언급
 - : 광종의 경우 쌍기가 귀화한 이후 너무 융숭하게 대접하였으며 밤마다 이야기하여 정사에 게을리하고 연희와 놀음이 그치지 않았다고 비판함. “비록 중국의 풍속은 존중하였으나 중국의 좋은 법은 취하지 않았으며, 중국의 선비는 예우하였으나 중국의 어진 인재는 얻지 못하였습니다.”(125-126쪽). 불교를 너무 신봉한데 따른 폐단, 궁중의 사치, 죄없는 사람을 죽인 것 지적.
 - 최승로의 시무 28조중 22조만 전해짐
 - 1) 군사력을 키워 국경 방비에 철저. ‘마혈탄을 경계로 삼은 것은 태조의 뜻이요, 압록강가의 석성을 경계로 삼은 것은 중국이 정한 것임. 요해지를 가려 국경을 정하고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하는 토인을 뽑아서 방어하고 지키는데 충당하고 또 그가운데 2,3명의 편장을 뽑아 이를 통솔하게 한다면 경군이 별갈아 수자리하는 노고를 면하게 되고 마초와 군량은 운반비용을 덜게 될 것임“(130쪽)
 - 3) 왕궁의 시위군졸의 숫자를 줄일 것
 - 5) 중국에 사신을 보내면서 무역까지 하여 사신의 내왕이 번거롭고 많아서 중국에서 천하게 여길 것이며 왕래로 인하여 배가 침몰되어 죽는 사람도 많음. 교빙하는 사신편에 겸하여 무역을 행하고 그 나머지 수시로 매매하는 것은 일체 금지시킬 것(132쪽)
 - 11) 중국의 제도를 따르되 사방의 습속은 다르기 때문에 모두 고치기는 어려움. 그 예약, 시서의 가르침과 군신, 부자의 도리는 중국을 본받아 비루한 풍속을 고쳐야 됨. 그 밖의 거마, 의복의 제도는 지방의 풍속대로 하여 사치와 검소를 알맞게 할 것이며 중국과 같이 할 필요는 없음(134쪽)
 - 시랑 김육을 송에 보내 왕의 계승을 알림.
- 계미 2년(983)
 - 송이 사신 보내 왕을 책봉함. 식읍 2천호 고려국왕으로 봉함
- 갑신 3년(984)
 - 압록강에 성을 쌓으려고 했으나 여진의 반대로 실패. 송에 방물 바침
- 을유 4년(985)
 - 송이 왕을 책봉, 식읍 1천호를 더줌.
 - 송이 거란을 쳐서 연계를 수복하기 위해 한국화를 보내 조서를 가지고 옴 : 이웃나라와 협조하여 힘을 합쳐 적을 평정할 것이므로 고려에게 오랑캐를 평정하라고 함
 - 고려 왕은 시일을 끝내며 군사를 내지 않음. 여진이 ‘고려가 거란과 서로 지원하여 백성 약탈한다’고 송에 무고함
 - 고려 왕은 한국화에게 거란과는 길이 막혀 서로 사귄 길이 없으며, 여진에서 피난하여 벼슬하는

이들을 중국에 불러다 시비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해서 송의 요청을 거절함

○ 병술 5년(986)

- 거란이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함 / 최한과 왕림을 송에 보내 태학에 입학시킴

○ 무자 7년(988)

- 송이 2차례에 걸쳐 사신 보내 왕을 책봉, 식읍 1천호 식실봉 5백호를 더해봄.

○ 신묘 10년(991)

- 한언공이 송에서 돌아와 대장경을 바침. 송의 추밀원을 본받아 중추원을 설치함

○ 기사 12년 (993), 송 순화 4년: 거란 통화 11년 - 거란의 침공

- 5월에 여진이 거란이 침공할 것을 모의한다고 알렸으나, 조정에서는 여진이 속인다고 해서 방어하지 않음.

- 10월에 거란 소손녕이 군대를 이끌고 침공함: 거란이 고구려의 옛땅을 차지했는데, 이제 고려가 강토의 경계를 침탈하기 때문에 정토한다는 명분 내세움.

- 서희가 화친 가능성 보고함 : 고구려 옛땅을 빼앗다는 것은 공갈이고, 광종때 축성한 거주, 송성을 빼앗기 위함임

- 서희와 소손녕의 담판(167쪽) : 소손녕의 주장 - 고구려땅이 거란 소유인데 고려가 침식함. 거란과 국경을 접함에도 바다 건너 송을 섬김. 지금 땅을 떼어 바치고 조빙할 것을 강요함

- 서희의 답변 : 고려가 옛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며, 압록강 안팎도 고려의 경내인데 여진이 길을 막고 있음. 여진을 쫓아버리고 우리의 옛땅을 돌려주어 성보를 쌓고 도로를 통하게 한다면 조빙하겠다는 의사 표명 → 소손녕이 돌아가 고려에서 화친을 청하였으니 전쟁 중지를 황제에게 아뢰 → 고려도 박양유를 조빙 사절로 거란에 보냄

○ 갑오 13년(994)

- 소손녕이 글을 보내, 사신의 왕래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 요충 길목에 성과 못을 쌓으라는 거란 황제의 지시를 전함. 성의 수를 알려주어 거마를 교통하여 조공의 길을 열라고 함

- 처음으로 거란의 연호를 시행함. 시중 박양유를 보내 표문을 받들고 거란에 가서 정사를 시행함을 알리고 포로를 돌려줄 것을 요청함

- 6월에 원욱을 송에 보내 군사를 얻어 지난해 전쟁(거란 침공)에 보복할 것을 청함. 그러나 송은 북쪽 변방이 겨우 편안해졌는데 경솔하게 움직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돌려보냄. 이후 송과 단교

○ 을미 14년(995)

- 거란에 방물 바치고, 혼인관계 맺음: 동경유수 부마 소항덕의 딸을 시집보내도록 허가함

○ 병신 15년(996)

- 거란 사신이 와서 왕을 책봉하여 개부의동삼사 상서령 고려국왕으로 삼음. 단을 쌓고 책명을 전하니 고려왕이 예를 갖추어 책명을 받음

○ 정유 16년(997)

- 10월에 왕이 병환으로 죽음. 11월에 합문사 왕동영을 거란에 보내 왕위 계승을 알림

□ 목종 선양 대왕

○ 이름은 송, 경종의 맏아들. 12년간 재위

○ 무술 원년(998), 송 진종 함평 원년: 거란 통화 16년

- 거란이 고려의 전왕이 죽었다 하여 혼인납폐로 바친 물품을 돌려보냄

- 서희가 죽자 소손녕이 낙타 열 마리, 말 1백필, 양 1천마리, 금기, 나환 함께 5백필을 보냄

○ 기해 2년(999)

- 거란이 왕을 책봉하여 상서령으로 삼음 / 일본국 사람 도요미도 등 20호가 와서 의탁함
- 이부시랑 주인소를 송에 보냄. 송 황제에게 주인소가 '고려 사람이 중국의 풍속을 사모하므로 거란에게 위협당하여 제제를 받고 있다'고 사정을 진술함. 황제가 조서를 주고 돌려보냄
- 정미 10년(1007)
 - 거란이 야율연귀를 보내 왕을 올려 책봉함. 식읍 7천호로 삼음
- 기유 12년(1009)
 - 왕이 병환이 깊자 대량군에게 왕위를 물려주도록 조치함. 그러나 강조 등이 군사를 일으켜 대량군을 새로운 임금으로 추대하고, 왕은 폐위당하고 시해당함

3. 『고려사절요』제3권

□ 현종 원문대왕

- 이름은 순. 안종 옥의 아들. 22년간 재위
- 경술 원년(1010)
 - 여진이 거란에 호소하니 거란주가 신하들에게 "고려의 강조가 임금 송을 시해하고 순을 임금으로 세웠으니 대역이다. 군사를 일으켜 죄를 묻겠다"고 함.
 - 7월에 거란이 대장군 야율윤을 보내 전왕(목종)에 대한 일을 물음
 - 10월 거란이 군사를 일으키겠다고 알리자, 사신을 거란에 보내 화친을 청함
 - 11월에 거란주가 40만명을 이끌고 침공함. 고려 장수들에게 '역당에 협조하여전왕의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지 않느냐'고 하면서 항복을 권유함
 - 강조가 패하여 사로잡힘. 거란주가 자신의 신하가 될 것을 회유하자 거절하여 죽음
 - 고려 군대의 패배로 왕은 표문을 올려 조회하기를 청함 → 강감찬만 왕에게 남쪽으로 가기를 권함 → 이후 고려 왕 일행이 피신하면서 장수들의 배판으로 고초를 겪음
- 신해 2년(1011)
 - 정월 초하루에 거란주가 서울에 들어와 궁궐과 민가등을 모두 불태움.
 - 거란군이 물러간 후 고려군의 공격으로 큰 타격 가함. 왕이 서울로 돌아온 후 피해 복구조치
 - 공부낭중 왕침을 거란에 보내 군사를 돌이킨 데 대해 사례함
 - 영빈관과 회선관을 설치하여 여러 나라 사신을 접대함
- 임자 3년(1012)
 - 거란이 왕에게 친히 와서 조회하라고 함
 - 형부시랑 전공지를 거란에 보내 왕이 병으로 조회할 수 없다고 알림. 거란주가 흥화, 통주, 용주, 철주, 광주, 귀주 등 6개 성을 빼앗으라고 지시함
- 계축 4년(1013)
 - 거란의 사신이 여러 차례 와서 흥화 등 6개 성을 달라고 요구함
- 갑인 5년(1014)
 - 8월에 송에 용봉안복을 바치고 옛날과 같이 귀부하기를 청함: 송 황제가 등주에 명하여 해안에 관사를 설치하여 대접하라고 지시함
 - 거란이 통주와 흥화진을 침략하자 패퇴시킴
- 을묘 6년(1015)
 - 거란의 계속 침공. 여진도 침입.
 - 무신이 권세를 부려 문관까지 겸임하니 조정의 기강이 문란해짐
 - 민관시랑 광원을 송에 보내 방물을 바치고 거란이 해마다 침략함을 알림.

- 병진 7년(1016)
 - 거란군이 광주 침략. 싸우다가 죽은 고려군의 숫자가 수만명이 됨.
 - 거란 사신이 압록강에 왔으나 받아들이지 않음
 - 광연이 송에서 돌아옴. 여진 또는 거란이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여려해 동안 조회하지 못했음을 호소했으나 송 황제는 거란의 맹약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움. 황제가 장사덕을 시켜 “귀국은 거란과 국경이 이어져 있으니 우호관계를 맺어 백성을 휴식시키는 것이 장구한 계획”임을 광연에게 설득시키도록 함(240쪽)
 - 거란인들이 소규모 계속하여 와서 의탁함.
 - 다시 송의 연호를 시행함
- 무오 9년(1018)
 - 12월에 거란의 부마 소손녕이 10만병을 이끌고 침략함. 강참찬을 상원수로 삼아 20만명의 고려군이 영주에 주둔. 흥화진에서 매복, 냇물을 막았다가 터놓고 복병을 내어 크게 패퇴시킴
- 기미 10년(1019)
 - 2월 거란군대가 귀주 지날 때 강감찬 등이 싸워 크게 이김
 - 거란의 동경문적원 소감 오장공이 와서 알현함
- 경신 11년(1020)
 - 이작인을 거란에 보내 표문을 올려 번국(藩國)을 일컫고 공물 바치는 것을 종전대로 할 것을 청하게 하며, 억류하였던 야율행평 등을 돌려보냄 / 3월에 거란 사신이 옴
- 신유 12년(1021)
 - 2월 거란 사신이 와서 예물을 가지고 옴
 - 한조를 송에 보내 사은함
- 임술 13년(1022)
 - 4월에 거란이 사신을 보내 왕을 고려국왕 식읍 1만호 식실봉 1천호로 책봉하고 수레, 의복, 의물을 줌. 이로부터 다시 거란의 연호를 시행함.
 - 8월 거란 사신이 와서 “이제부터 춘계, 하계의 문후사는 모두 한번씩만 보내되 천령절하사, 정단하사와 동행하도록 하며, 추계, 동계의 문후사는 아울러 한번만 보내되 태후생신하사와 동행하도록 하라”고 사신 숫자를 줄임
- 계해 14년(1023)
 - 4월 거란 사신이 와서 태자 흠을 책봉, 보국대장군 검교태사수태보 겸시중 고려국공으로 삼음
- 갑자 15년(1024)
 - 예부상서 주저가 사망함. 주저는 중국에서 와서 고려에 머물러서 목종, 현종때 교빙문서 작성함
- 정묘 18년(1027)
 - 송의 강남 사람 이문통 등이 와서 597권의 서책을 바침
- 기사 20년(1029)
 - 왕이 ‘여진이 변경을 침범하여 해를 끼침이 점점 심해지니 그 우두머리르 불러 어루만지고 상을 후하게 내려 덕으로 사람을 회유하겠다’는 것을 재상들에게 이룸. 이에 참지정사 광원이 “여진은 얼굴은 사람이나 마음은 짐승과 다름이 없으니 은혜로 회유하는 것이 어찌 위엄으로 누르는것만 하겠습니까” 하니 왕이 그 말을 윽게 여김(276쪽)
 - 탐라백성 덩일 등이 일본에서 돌아옴. 항해중 동남쪽의 먼 섬에 이르렀는데, 섬사람들이 몸이 장대하고 온몸에 털이 났으며 말이 달랐음. 억류 7개월만에 작은 배를 훔쳐타고 동북쪽으로 일본의 나사부(지금의 나가사키)에 이르러 살아돌아옴

- 9월 거란 동경의 장군 대연림(大延琳)이 대부승 고길덕을 보내 나라를 세운 것을 알리고 구원을 요청함. 대연림은 발해시조 대조영의 7대손이며, 거란을 배반하여 국호를 흥요(興遼)라 함.
- 12월 흥요국의 태사 대연정이 동북여진을 이끌고 거란과 싸우면서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함. 시종 최사위와 평장사 채충순이 “전쟁은 위태한 일이니 신중히 하지 않아서는 안되며, 성지를 수리하고 봉수를 삼가서 사태를 관망할 것’을 건의하나 왕이 이를 따름. 이로부터 길이 막혀 거란과 통하지 못하게 됨
- 서북면 판병마사 류소로 하여금 기복시켜 진에 나가게 함. 흥요국이 원조를 청하는데 허락하지 않으므로 류소를 보내 대비함.

○ 경오 21년(1030)

- 흥요국에서 군사를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음
- 김가를 거란에 보내 동경을 수복한 데 대해 하례함
- 거란이 천우장군 나한노를 보내, 발해 투주사 모두 포위를 당해 항복했으니 배신을 보내 거란에 오게 하라고 내용의 조서를 전달함
- 거란의 해가와 발해의 백성 5백여명이 와서 의탁하니 강남의 주, 군에 살게함.

○ 신미 22년(1031)

- 왕의 병환이 위독하여 죽음. 사신 최충의 언급, “이모(천추태후)가 끼친 화근으로 인해 병권을 가진 신하<강조 지칭>가 반역을 일으키고 강한 인국(거란)이 틈을 엿보아 침범하여 서울의 궁궐이 모두 잿더미가 되어 임금이 파천하니 불행이 극도에 달하였다. 반정한 뒤에 오랑캐와 우호 관계를 맺고, 전쟁을 멈추고 문덕을 닦으며.. 나라를 중흥시킨 왕이다”(283쪽)
- 강감찬의 사망
- 공부낭중 류교를 거란에 보내 성종의 장사에 회장하게 하고, 김행공에게 새 임금의 즉위를 하례하게 함. 왕가도가 아뢰기를 “거란이 우리 나라와 서로 우호관계를 맺고 예물을 주고받지마는 그들은 우리 나라를 병탄할 뜻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임금이 죽고 부마 필제가 배반하여 동경을 점거하고 있으니 이시기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압록강의 성과 다리를 헐어버리고 붙잡혀 있는 우리 이 사신을 돌려보내도록 청하되 만약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그들과 국교를 단절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함. 이러한 내용을 표문에 붙여 써서 보냄
- 김행공이 거란에서 돌아와 우리가 청한 바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보고함. 평장사 서눌 등 29명이 ‘사신을 보내지 말자’고 주장 vs 중추사 황보유의 등 33명이 ‘만약 국교 단절시 그 피해가 백성을 괴롭게 하니 우호 관계를 계속하여 백성을 휴식시키는 것만 못하다’라고 주장함
- 왕이 서눌과 왕가도의 의논을 좇아 하정사는 정지하고 (죽은 왕인) 성종의 태평이라는 연호는 그대로 사용함.

4. 『고려사절요』제4권

□ 덕종 경강대왕

- 이름은 흠. 현종의 맏아들. 3년간 재위
- 임신 원년(1032)
 - 거란이 사신을 보냈으나 받아들이지 않음
- 계유 2년(1033)
 - 철리국이 사신을 보내 말과 담비 가죽을 바침. 답례로 내려준 것이 매우 많음

- 해적이 간성현 백석포에 침입. 이후 해적의 침입 및 격퇴 소식이 빈번해짐
- 북쪽 경계에 천리 장성을 쌓음
- 갑술 3년(1034)
 - 팔관회 개최, 송 상인과 동서번과 탐라가 토산물을 바침. 그들에게 앉아서 예식을 보게 해주었으며 이후 일정한 절차가 됨.

□ 정종 용혜대왕

- 이름은 형. 덕종의 동모제. 12년간 재위
- 을해 원년(1035)
 - 거란 내원성이 흥화진으로 통첩함: 고려는 원래 우리의 부용국(附庸國, 속국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계속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돌성을 쌓고 군사를 주둔시킴. 거란 남하의 임금들도 영구히 의를 사모하여 우호를 하였고, 서토의 여러 왕들도 소문을 듣고 정성을 바치는데, 유독 동쪽 바다 지역만이 아직까지 높으신 복극에 복종하지 않음 (302쪽)
 - 영덕진(평북 의주)가 거란에 회답함: 계속 방물을 바쳐왔음. 요를 평정한 뒤부터 사신왕래가 있었는데 조공하는 예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음. 성채를 세운 것은 변방사는 백성을 편안히 살게 하려는 것임. 고려의 사신을 돌려보내고 땅을 되돌려줄 것을 요청함.(303쪽)
- 병작 2년(1036)
 - 일본국이 표류해간 고려인 11명을 되돌려줌
 - 송으로 가는 사신들이 용진에서 배가 부서져 그대로 돌아옴
- 정축 3년(1037)
 - 거란의 통첩: 고려가 표장을 올려 진실한 정성을 증명하면 허락할 것임 → 고려: 사신을 파견
 - 거란이 병선 거느리고 압록강에 침입
 - 12월 전중소감 최연하가 거란에 가서 주장 : 고려의 새임금 즉위를 알리는 사신을 보냈는데 윤택하지 않아 의심이 쌓여가서 조공을 중지함. 다시 조공하겠다는 의사 전달
- 무인 4년(1038)
 - 3월 최연하가 거란에서 돌아오면서 거란의 조서를 가져옴 : 고려의 전왕이 나라를 이어받고 조공을 늦추어 여러해가 지나서 중국에서 사정을 알지 못함. 다시 윤택함
 - 4월에 사신이 거란에 가서 문안하고 사은하며 연호를 청함
 - 여진인의 살인 범죄 행위 처벌 문제 : 고려법대로 처리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결국 자기 나라 풍속대로 처리하게 함.
 - 8월, 비로서 거란의 연호를 시행함
- 기묘 5년(1039)
 - 2월에 거란에 방물 바치고, 안무하여 준데 대해 사례함. 압록강 동쪽에 거란이 쌓은 성보를 헐도록 요청함 → 거란의 회답 조서: 압록강 성벽을 지금 고치기 어렵고 땅을 개간, 농사지는 것 허용
 - 거란이 사신 보내 고려 국왕 책봉: 식읍 7천호 식실봉 1천호.
- 경진 6년(1040)
 - 11월에 대식국의 객상 보나합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침: 잘 대우하고 돌아갈 때 금과 비단 줌
- 임오 8년(1042)
 - 11월 거란의 조서: 거란-송이 다시 조약을 체결하여 영구히 좋게 지내기로 했다는 점 전달
- 병술 12년(1046)
 - 병부낭중 김경을 보내 동해부부터 남해까지 바다를 끼고 내려가며 성보와 농장을 쌓아 해적이 뜰고 들어오는 길을 막음

□ 문종 인효대왕 1

- 이름은 휘. 현종의 셋째 아들. 37년간 재위
- 정해 원년(1047)
 - 거란이 고려국왕 식읍 7천호 식실 1천호로 책봉함
- 기축 3년(1049)
 - 일본 대마도관이 수령 명임 등을 보내 폭풍에 휩쓸려간 고려인 20명을 돌려보냄. 명임 등에게 차등있게 물품을 내려줌
- 경인 4년(1050)
 - 해적 소굴까지 가서 소탕한 것을 보고. 이후 전국 각지에 해적들의 침몰과 약탈, 살상행위가 빈번함. 고려 군대가 전함을 동원 추격 대패시키면서 이들 장수와 군인들에 상을 내려줌
 - 최종: 동여진인들의 노략질이 심해 억류하였으나 이들은 형법으로 응징할 수 없고 인의로도 교화할 수 없음. 원한을 품으며 비용이 많이 드므로 석방해서 돌려보낼 것을 건의하여 시행됨(355쪽)
- 을미 9년(1055)
 - 거란이 사신 보내 고려왕 책봉. 왕태자를 삼한국공 태자로 책봉.
 - 거란에 국서 보냄: 우리나라가 기자의 나라를 물려받아 압록강을 경계로 함. 전에 내어주었던 땅을 돌려주고 성, 다리, 궁란, 정사를 헐어줄 것을 요청함(367쪽)
 - 거란 흥종의 부고를 알려오자, 왕이 흰옷을 입고 백관을 거느려 조서를 받고 애도의식을 행함.
- 병신 10년(1056)
 - 10월, 일본국 사신 정상위 권예등원과 조신 뇌충 등 30명이 금주에 와서 관에 머무름

5. 『고려사절요』제5권

□ 문종 인효대왕 2

- 정유 11년(1057)
 - 책봉을 거행하는 사신 행차에 중외의 관리와 백성이 접대하는데 피로하므로, 접대시 잘못된 자는 석방하고 지나가는 길목의 주, 현은 올해 조세를 절반으로 줄이며, 관련 관리들의 벼슬을 올림
- 무술 12년(1058)
 - 거란의 사신이 고려에서 접대받을 때 밤까지 술을 권하고 촛불을 꺼는 폐단을 지적함. 이후 잔치는 낮으로 정하고 전송하는 예도 조회하는때로 제한할 것을 건의하여 시행(383쪽).
 - 왕이 탐라와 영암에서 목재를 벌채하여 큰 배를 만들어 송과 통하려는 것에 대해 내사문하성이 반대함: 중국의 장사배가 내왕하여 값진 보배가 날마다 들어오니 중국과 교통하려고도 실제 소득이 없음. 거란과 영구히 절교하지 않을 것이면 송과 교통함은 마땅하지 않음(387쪽)

6. 『고려사절요』제6권

□ 선종 사효대왕

- 이름은 윤, 순종의 동복동생. 11년간 재위
- 갑자 원년(1084)
 - 송에서 사신이 옴

□ 현종 공상대왕

- 이름은 옥, 선종의 원자, 1년간 재위. 14세.
- 을해 원년(1095)

□ **숙종 명효대왕 1**

- 이름은 옹, 10년간 재위.
- 병자 원년(1096)
 - 9월 박인량이 사망. 송 희령연간에 김근과 함께 사신으로 가서 시와 문을 간행한 것이 <소화집> 임. 요가 압록강을 경계로 삼으려고 하자, 박인량이 진정표를 지어 "온 하늘이 왕의 땅, 왕의 신민인데 땅의 나머지를 내 경계 내 관할이니 할 것이 있느냐, 옛 토지를 돌려주고 고려를 돌보아 주면 태평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함. 이를 본 요 황제가 압록강 경계 논의를 중지함(473).
- 정축 2년(1097)
 - 송에서 표류중인 고려인 3명을 돌려보냄: 탐라백성이 표류하여 裸國에 들어갔다 살아남음.
- 신사 6년(1101)
 - 왕하, 오연총이 송에서 돌아올 때, 송 황제가 왕에게 <태평어람> 1천권을 하사함. <신의보구방> 의서도 가지고 옴.
 - 8월에 조서 내림: 북으로 요와 사귀고, 남으로 송을 섬겼는데, 또 여진이 동쪽에 버두고 있다. 군국이 힘쓸 것은 백성을 편안케 함이 가장 급하다.(487쪽)
- 임오 7년(1102)
 - 예부에서 건의: 기사 사당이 없으니 사당을 세워 제사지내기를 청함

7. 『고려사절요』제7권

□ **숙종 명효대왕 2**

- 갑신 9년(1104)
 - 윤관이 별무반 설립 건의: 여진이 기병인데 고려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 없음.

□ **예종 문효대왕 1**

- 이름은 우, 숙종의 태자, 17년간 재위
- 병술 원년(1106)
- 정해 2년(1107)
 - 서경 천도 논의
 - 윤관의 여진 정벌 출병 : 땅의 경계 확정
- 무자 3년(1108)
 - 윤관이 여진 평정, 6성 신축
 - 북계 9성에 남계 백성을 이주
- 기축 4년(1109)
 - 우간의대부 이재: 9성을 여진에게 돌려줄 것을 건의
 - 이여림을 요에 보내 동계 9성의 신축을 알림
 - 여진이 강화를 청하면서 9성 돌려줄 것을 요청함 : 9성 수비의 어려움 논의 → 여진을 9성 돌려 주면 대대로 조공하겠다고 함 ; 왕이 윤희하고 돌려줌(542쪽)
- 경인 5년(1110)
 - 송이 조서를 보냄. 의대, 피륙, 금옷그릇, 활과 화살, 안장말을 줌.
 - : 남북 두 조정이 친교를 맺은지 1백년이 지난 시기에 의가 형제와 같아서 다시 왕을 책봉하지 않고 조서를 보내는데, 요에서 책봉한 중에 '權'자를 빼는 것은 고려 왕을 총애하여 眞王의 예로써 하는 것이며, 황제의 친필로 조서를 작성하였으니 북조에서 이와 같은 예우를 받기 어려우므로 조서를 받을 것을 건의함. → 고려 왕이 표문 뒤에 글을 부쳐 사례함